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육중서한 ■

## 자주통일의 빛나는 역사로 나아가는 귀중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라 창 순

(평의원, 범민련 전 의장)

이종린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조국통일 3대헌장 기치 높이 들어 애국애족운동을 벌이는 범민련 성원동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저런 하늘을 배경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인 듯합니다.

요즘 들어서□□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북부조국의 행사에 남측대표 단장으로 서원철 대표, 이성우 대표 등과 방북했던 옛날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창살 사이로 푸르른 먼 하늘을 바라보며 ‘어서어서 분단된 조국이 통일된 그날이 다가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지난□□2001민족통일대축전□□북부조국 평양본대회 행사에 400여 명의 남측대표단이 방북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본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린 것은 수구보수 세력의 왜곡 과장과는 달리 전 민족적으로 통일의 원칙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통일의지를 천명한 대축제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숨결과 체취가 생생히 살아 있는 백두밀영, 만경대 고향집 등을 찾아보았고 백두산, 묘향산을 등정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과 통일열기에 가득 넘치는 북녘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분단의 눈물을 씻고 자주통일의 빛나는 역사로 나아가는 귀중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넘어 정당·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과 북의 정부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 가운데 한총련 학생들로부터 갖 쓴 종단 할아버지까지 해외 참가단과 함께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 이질감보다는 동질성이 훨씬 많은, 바로 피는 물보다 진했던 시간들을 되새김질하고 확인했던 큰 성과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헌데 지난번 참가단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등 일부의 구속 등으로 국가보안법 악용, 남용이 드러났으며 6.15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는 이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보내 놓고 이른바 잠입탈출이라고 잡아 가두는 이윤배반적 적용형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님 !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운 민족입니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잔악무도한 일제무리가 침략하여 36년간 식민지화한 후 곧이어 철천지원수인 불량자 미제가 이남을 강점하여 신식민지정책으로 남북이 분단되어□□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당하는 흐름으로 고난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는□□물질만능보다는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는 세상에서 민족의 본성이 실현되는 하나 된 나라를 세워야지. 꼭 그래야지□□다짐해 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평화롭고 커지는 거라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습니다.

이 땅의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옳은 일을 위해 멀고도 험난한 그 길을 웃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조그마한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2001년 10월 1일  
빛고을에서 라창순 드립니다

[\*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측대표로 방북해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돌아오셨던 자랑스런 라창순 방북대표님께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의 구속을 보며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